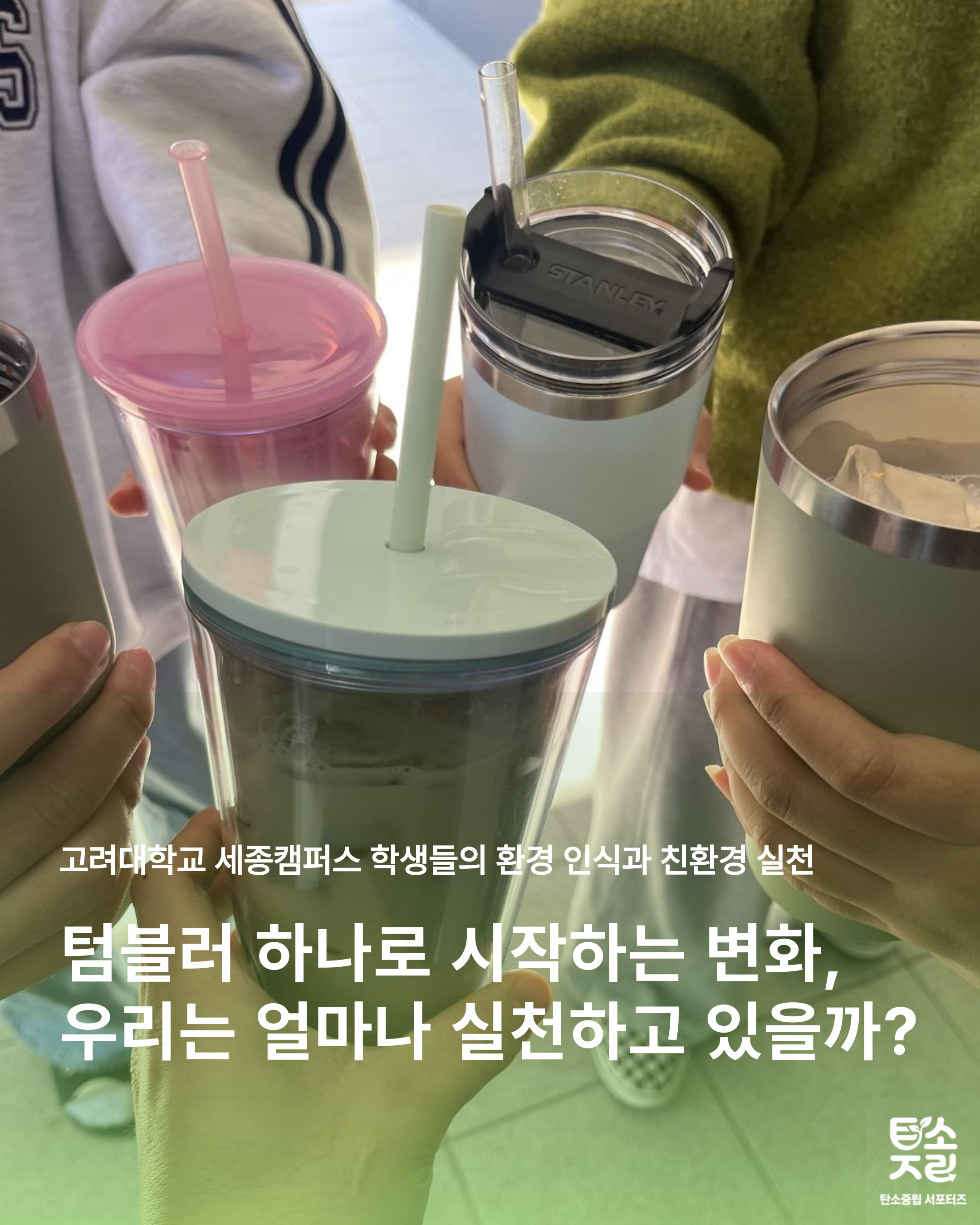




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생들의 환경 인식과 친환경 실천

텀블러 하나로 시작하는 변화,  
우리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을까?

텀블러  
지리

탄소중립 서포터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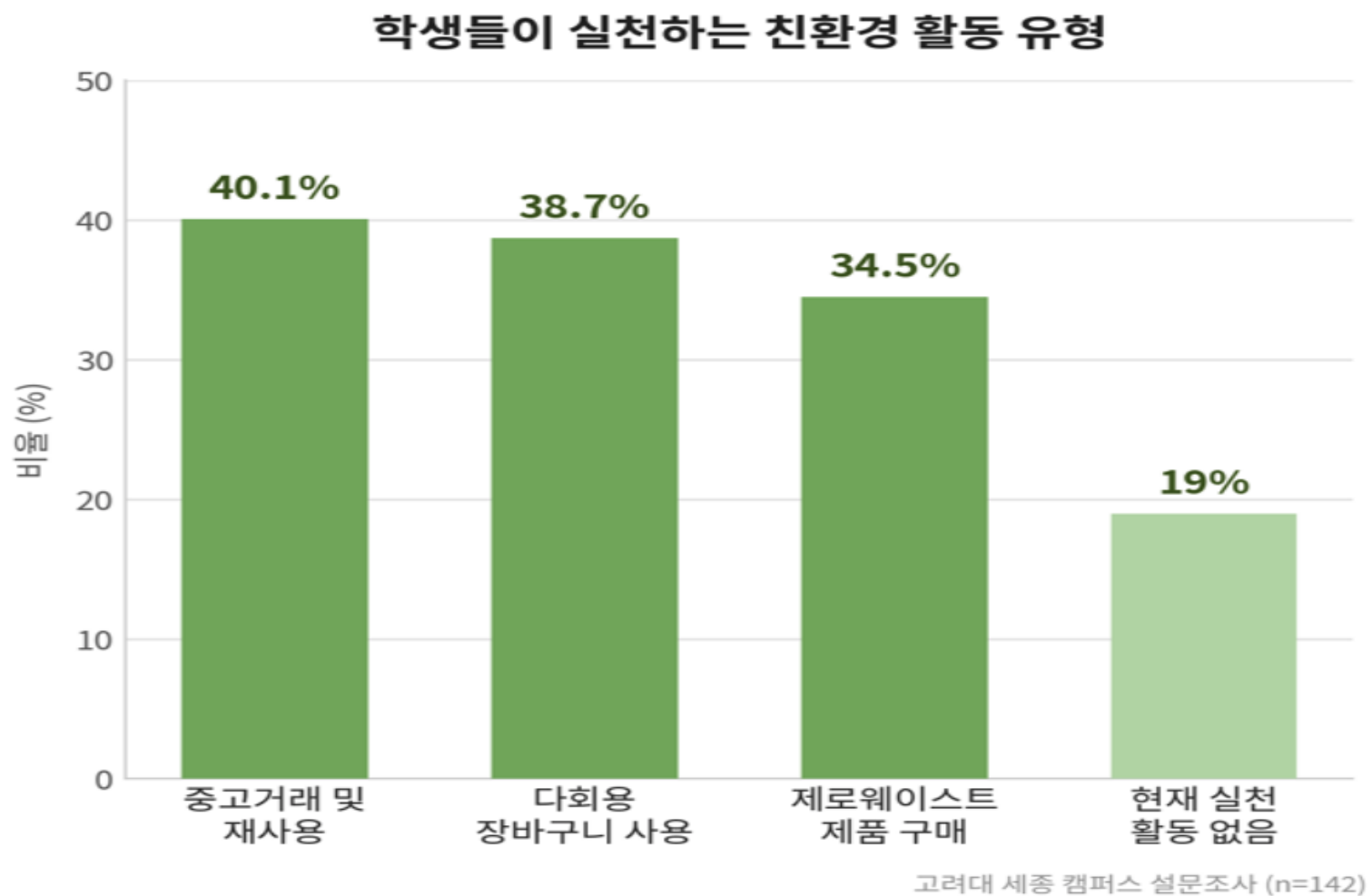
탄소중립 서포터즈는 2026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인 6월 8일 (월)부터 6월 10일(수)까지 중앙봉사동아리 다가치, 제7대 글로벌 비즈니스대학 학생회와 함께 다회용 컵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'텀블러 사용 캠페인'을 진행했다.

또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생들의 환경 인식과 친환경 실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함께 진행했으며, 총 142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.

설문조사 결과, 응답자의 54.2%(77명)가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. 반면 개인 텀블러를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44.4%(63명)에 그쳤다.

이를 통해 학생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, 이러한 인식이 일상 속 친환경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아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## 학생들의 친환경 활동 실천 양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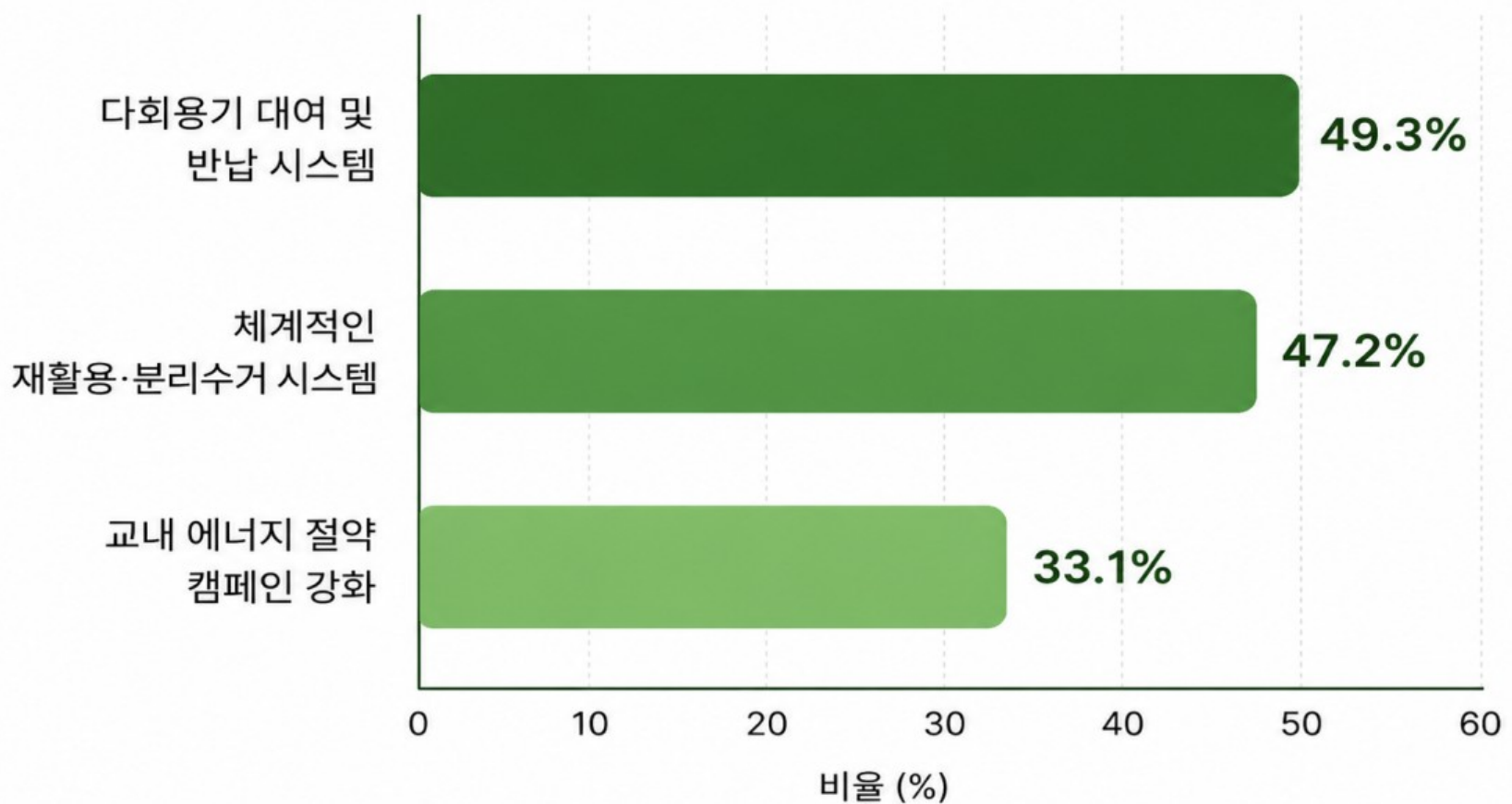
학생들이 실천하는 친환경 활동 유형은 중고거래 및 재사용이 40.1%로 가장 높았고, 이어 다회용 장바구니 사용 38.7%, 제로웨이스트 제품 구매 경험 34.5% 순으로 나타났다.

그 외로 쓰레기 분리수거, 빈 강의실 및 열람실 전등 끄기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행동에 참여하고 있었다.

반면, 응답자의 19%는 현재 특별히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 활동이 없다고 응답했다.

## 학생들이 바라는 친환경 캠퍼스

### 학생들이 원하는 친환경 캠퍼스 정책



고려대 세종캠퍼스 설문조사 (n=142)

학생들이 원하는 친환경 정책으로는 **다회용기 대여 및 반납 시스템 (49.3%)**이 가장 높았고, 이어 체계적인 재활용·분리수거 시스템 (47.2%), 교내 에너지 절약 캠페인 강화(33.1%) 순이다.

이는 학생들이 개인의 실천을 넘어, 친환경 행동을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는 학교 차원의 제도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.

대학의 친환경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63.4%(90명)로 나타났다. 이는 적절한 프로그램과 참여 기회가 마련될 경우, 더 많은 학생들이 탄소중립 활동에 동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.

텀블러 사용, 분리수거, 에너지 절약과 같은 작은 실천이 모인다면 지속 가능한 캠퍼스를 만드는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.

탄소중립 서포터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.